“스님 대신 인공지능 설법하는 시대 올 것”

일본 정토종 이나다 미즈키 스님, ‘히간지’에 기고

“만약 불교를 배운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스님들은 어떻게 될까?”

일본 정토종 소속의 젊은 스님 이나다 미즈키(稻田瑞規 · 25) 씨의 흥미로운 발상은 이 질문서 시작됐다.

세계적 화제인 인공지능 기술에 자극을 받은 이나다 씨는 11월 11일 ‘인공지능과 불교’란 제목의 글을 불교언론 사이트 ‘히간지(彼岸寺)’에 기고했다. 이 기고문은 의외의 큰 호응을 얻으며 SNS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만약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불교와 스님들은 어떻게 될까?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까마득히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계 스스로가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개발된 상태다.

이나다 씨도 현실의 인공지능 기술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작성하거나 영화 각본을 쓸 수 있을 만큼 뛰어나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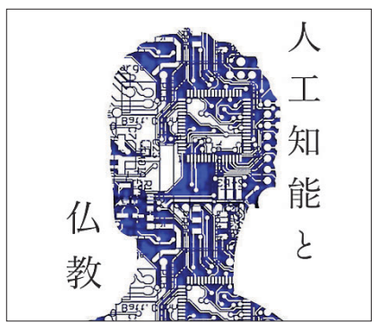
예를 들어 영화각본을 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수많은 명작 시나리오 데이터를 입력해 명작영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한 후 새로운 각본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비록 인공지능이 만든 각본이 아직은 미숙하고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많지만 점점 인간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알려진다. 지능을 가진 기계의 출현으로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침범당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면 불교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일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단 것이 이나다 씨의 주장이다. ‘팔만대장경’이란 방대한 경전을 인공지능에 입력시킨 후 불교를 학습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고문엔 세간에 큰 화제를 모았던 이세돌과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을 비유하며 ‘석가 알파’라는 가상의 인공지능을 등장시켰다. 석가 알파가 탄생하면 불교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나다 씨는 그보다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는 알려진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뜻한다. 그 가르침은 모두 불전(佛典)에 기록돼 있으며, 이는 곧 ‘불교=부처님의 가르침=불교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스님이라 해도 방대한 경전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나다 씨는 “경전을 모두 읽는 데만 평생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대기설법(對機說法)의 형식을 통해 상담자의 고민에 따라 설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순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대량의 경전을 빠른 시간에 독파할 수 있음은 물론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도 가능하다. 이 기술은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기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유저가 입력한 몇 가지 개인 정보만으로도 수많은 지인들을 연결해 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공지능의 문장 인식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나다 미즈키(稻田瑞規 · 25) 스님이 기고문에 첨부한 삽화. 사진출처=히간지

아무리 스님이라도 인간은 방대한 경전 전부 기억 못 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적용하면 대량 경전 빠른시간 독파 가능

이 기능들을 바탕으로 이나다 씨는 ‘석가 알파’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눴다. ①입력된 경전 내용에서 부처님의 사고 패턴을 뽑아내 부처님의 사상으로 학습한다 ②축적된 부처님의 사고 패턴은 ‘번뇌 해결 시스템’으로써 출력된다(가령 스마트폰 같은 장치를 사용해 상담 내용에 맞는 답변을 내놓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③저장된 상담 내용을 분석해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답변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에게는 ‘수행’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 석가 알파가 세상에 출현하면 짧은 시기 동안 스님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이나다 씨는 예측했다. 결과는 인공지능의 승리를 점쳤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담내용을 토대로 끊임없이 개선해 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백만 아니 수억 명과도 동시접속이 가능하다. 게다가 근대 불교학자들이 이룩한 수많은 연구논문과 불교서적까지 독파한 석가 알파를 인간 스님들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는가.

끝으로 이나다 씨는 “만약 정말로 석가 알파와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지금의 승려들은 그저 장례식 같은 의식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따끔한 경고를 남겼다. 지금도 일본불교를 장례 불교 혹은 박제 불교라고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경고를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단순 기계화 되고, 지능을 가진 기계는 고도의 지적 활동을 통해 보다 인간에 근접해 간다는 예측이 달갑지만은 않지만 이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사찰과 대중을 보다 손쉽게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 웹미디어 개발을 배우고 있다는 이나다 씨는 “인공지능 석가 알파가 출현하기 전까지 승려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성원 객원기자

박스오피스 1위 ‘닥터 스트레인지’, 스님이 숨은 영웅?

겔롱 툽텐,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주연에 마음챙김수행법 전수

연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중인 영화가 있다.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다.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세계적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 레이첼 맥아담스가 주연을 맡아 큰 화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이 영화 제작에 한 스님이 자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온라인매체 ‘Wales Online’은 11월 10일(현지시간) 마음챙김 명상법을 ‘닥터 스트레인지’ 주연배우들에게 전수한 겔롱 툽텐 스님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Wales Online’은 “웨일즈에 위치한 삼예사원장 겔롱 툽텐 스님은 마블로부터 주연배우들을 위해 일해달란 제의를 받았다”며 “스님은 할리우드 대스타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음챙김 명상기술을 가르쳤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틸다 스윈튼 등 배우들은 촬영 틈틈이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슈퍼히어로(superhero) 영화다. 다만 일반적인 히어로처럼 물리적 힘이 세기 보단, 명상 등을 통해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강인해진단 내용이다.

겔롱 툽텐 스님은 “이 영화는 마음챙김수행에 관한 강한 주제의식을 지닌 작품”이라며 “촬영 쉬는 시간마다 배우들과 함께 명상수련을 했다. 400명 스태프가 돌아다니는 시끄러운 현장 속서 명상수련을 한 경험은 꽤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당신에게 생각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단 메시지를 던져주고, 마음엔 끝없는 가능성이 있단 것을 알려준다”며 “나 또한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향한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 겔롱 툽텐 스님, 배우 틸다 스윈튼. 사진출처=Wales Online

특히 겔롱 툽텐 스님은 무료로 이번 자문 역할에 나서 눈길을 끈다. 스님은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챙김수행의 이점을 알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내게 매우 특별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수행자 마당 쓸 듯 평정심 잃지 말라” 트럼프 당선에 美 불교 성직자들

티베트 스님 페마 초드론 등 트럼프 및 美 국민에 제언


사진 왼쪽부터 페마 초드론, 노만 피셔, 로시 팻 앤교 오 하라, 노아 레빈

도널드 트럼프의 역전승으로 미국 시민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불교 성직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티벳 불교 최초로 금강승 수행을 마친 미국인 스님 페마초드론을 비롯해 에브리데이 선(禪) 재단의 노먼 피셔 등 미국을 대표하는 불교 성직자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자비심을 갖고 사랑하고 수행자들이 매일 일어나 아침마당을 쓸 듯 평정심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페마 초드론(티베트 스님)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고에 빠져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일을 양극단의 상황으로 대립하는 대신, 서로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명상을 한다. 자비심, 상냥함, 다정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나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통탄에 빠진 이들을 도울 것이다.

노만 피셔(에브리데이 선 재단)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모두가 놀랐던 것처럼 놀랐지만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보디사트바(보살)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매일 아침 일어나 정원을 깨끗이 쓸어낸다. 보살은 긴 게임을 하는 것과도 같다. 그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강한 힘이 있으며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암흑시대가 영웅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보적인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우리가 닉슨, 레이건, 부시 정부의 시대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다지 유쾌하진 않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다.

언급한 대통령들의 정책이 나쁘지 않았고, 그들이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만 슬퍼하고 이제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 달라이 라마가 일생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라. 그는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부자비한 정권의 손아귀에 잃었지만 그는 매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상적인 연습을 유지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인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비극을 세상의 교훈으로 삼았다.

로시 팻 앤교 오 하라(빌리지 젠두)

우리 모두 선거 소식을 듣고 동요했다. 나는 어떤 가르침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지 자문해본다.

나는 관세음보살을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이 불행한 국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상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시민들과 인권, 기후변화, 언론 윤리 등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땅의 고통과 보살핌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아 레빈(어겐스트더 스트림)

미국에는 무지함이 존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지혜와 연민을 발달시키기 위해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서로 증오하는 이들, 탐욕과 혼돈으로 사로잡힌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것이다.

이보형 객원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